

Today Chart **Bond**

2026. 7. 10

채권 우혜영

whydele@ls-sec.co.kr

연준 체제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(TF) 전문가 명단 발표(7/9)

TF	이름	주요 약력
커뮤니케이션	Peter R. Fisher	- 美 워싱턴 대학교 포스터 경영 대학원 실무 교수 - 前 美 재무부 차관, 前 뉴욕 연은 공개시장운영 담당 부총재
	Arminio Fraga	- 브라질 자산 운용사 가베아 인베스티멘토스 창립자 겸 회장 - 前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
	Mervyn King	- 前 영란은행 총재
대차대조표 정책	Karen Dynan	- 美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 - 前 재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, 前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(CEA) 선임 경제보좌관
	Raghuram Rajan	- 美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 대학원 금융학 교수 - 前 인도 중앙은행(RBI) 총재, 前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
	Jeremy Stein	- 美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 - 前 연방준비제도 이사
데이터	Raj Chetty	- 美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 - Opportunity Insights 공동 설립자 -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·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
	Doug McMillon	- 월마트 최고경영자(CEO) - 美 유통·소비시장 전문가
	Kevin Murphy	- 美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교수 - 노동 경제학 및 인적 자본 분야의 권위자
생산성과 일자리	Marc Andreessen	- 벤처캐피탈 앤드리스 호로위츠(a16z) 공동창업자 - 넷스케이프 공동 창업자
	Charles I. Jones	- 美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 - 경제 성장과 생산성 연구의 세계적 석학 - 現 앤드루픽에서 연구 활동 중
	Asha Sharma	-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부사장(EVP), Xbox CEO - AI·클라우드 분야 기술 경영 전문가
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	Greg Mankiw	- 美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 - 前 CEA 의장 - 거시 경제학 분야의 대표 학자
	Thomas Sargent	- 美 뉴욕 대학교 경제학 교수 -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- 거시 경제학 및 통화정책 이론의 권위자
	William White	- C.D. 하우 연구소 선임연구원 - 前 국제결제은행(BIS) 경제 고문 -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정책 전문가

자료: LS증권 리서치센터

5개의 TF의 목적

TF	목적
커뮤니케이션(★★★)	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통화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과 정책 결정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검토할 예정
대차대조표 정책(★★)	現 대차대조표 운영 체제가 갖는 비용과 편익, 제도적 함의를 분석
데이터(★★★)	통화정책 판단에 활용되는 실물 경제 데이터 품질 및 적시성 향상 방안 모색
생산성과 일자리(★)	시를 비롯한 새로운 범용 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해 통화정책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
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(★)	연준이 인플레이션 원인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 체계 재검토

- 각 TF는 해당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갖춘 저명한 경제학자·기업인·전직 중앙은행 실무자 등 외부 자문 위원과 공동으로 이끌 예정. 연준 직원들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, 근거에 따라 분석 수행 및 솔직한 의견 제시함으로써 FOMC에 연구 결과 및 권고 제시
- 개인적인 생각: ★ 표시 많은 TF일수록 상대적으로 빠른 검토 후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가능할 것

Key Point

- 케빈 워시 의장, 연준의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에 대한 책무는 흔들림이 없으며, 책무를 철저히 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확고다하고 밝힘
- 또한 美 경제는 지난 한 세대 동안 크게 변화했고, 지금만큼 급격하게 변화한 시기는 없었다면서 각 TF는 정책 당국의 수단과 방법, 분석 도구, 정책 접근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설명
- 중대한 전환기인만큼 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
- 신트라 ECB 포럼에서 워시 의장, 데이터 TF와 관련해 '희망이자 포부는 향후 9~12개월 내에 연준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실물 경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,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'이라 언급한 바 있음 →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?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우혜영)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나 그 정확하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 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